



2면

"농생명산업 특화해 국가 거점화 하자"

전주매일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음 3월 4일) 제34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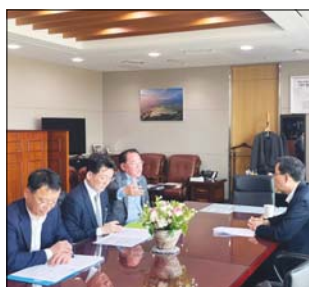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두 팔을 높이 들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택(군산 김제부안을)·이성운(전주을)·김윤덕(전주갑)·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정동영(전주병)·한병도(익산을)·박희승(남원장수임실무주)·윤준병(정읍고창)·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 당선인.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 국비 확보 활동 본격화

도 지휘부, 김관영 도지사 필두로 부처 설득 총력
중앙부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중점사업 반영 노력
김중훈 경제부지사, 농식품부 등 방문 첫 단추 꿰
총선 당선인들·중앙부처 항우에 지원 요청 등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역대 최대규모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 예산편성단계부터 지휘부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첫 단추인 중앙부처 예산편성단계부터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활동으로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김중훈 부지사는 농생명 및 해양관광 분야 신규발굴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내 수제맥주·식혜 등의 맥류 가공사업 성장에 대응하고 맥아 공급을 확대할 '맥류사업다각화 지원 시범사업' △국가 식량안보 및 밀 자급률을 높일 '국가전략작물(밀) 비축단지 조성사업' △안소개량으로 저탄소 한우 육성기반을 마련할 '저탄소 한우 육성모델 개발 시범사업'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고품질 기능성 팻푸드 개발을 지원할 '기능성 팻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적포항과 공항 연안의 안전한 해양탐방로 조성을 위해 '적포항·공항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발전 및 생태관광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방문했다.

또한 해양문화 공간 및 체험형 해양관광의 메카가 될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도정 현안사업 및 신규발굴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김관영 지사 등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설득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매주 각 실국장 등의 부처 설명활동 결과를 점검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당선자·중앙부처 항우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지만, 부처 단계부터 도 중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전북 당선인들 일성 "전북 몫 되찾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선거구 10석을 모두 석권한 가운데, 10명의 당선인들이 "전북 몫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윤덕·이성운·정동영·신영대·이원택·이춘석·한병도·윤준병·박희승·안호영 당선인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전북자치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전북자치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정권 2년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돼 대한민국은 총체적 퇴행을 가져왔다"며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과 도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겠다. 윤 정부의 무도함에는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 도민에게는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몫을 되찾기 위한 약속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들은 "전북자치도 당선자 일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윤 정부에 짓밟힌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겠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전북 발전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尹 정부 무도함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
대공법 개정·공공국립의원법 재추진"

또한,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주요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공법) 개정과 '공공국립의원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당선인은 "가능한 빠른시간 안에 (전북출신 국회의원) 다 모여서 대공법과 공공국립의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김윤덕 당선인은 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 전북 당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공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당선인은 서남권 의대정원 묶이었던 서남대가 폐교하면서 공공의료 전문대학원을 서남권일대에 설립하는 '공공국립의원법'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당선인은 "공공국립의원법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가 의대 증원여부를 놓고 공공의대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와 정부, 대통령실 이견이 보여 엇박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준 만큼 우리 야당이 의대정원 문제에

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재 대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지만 대공법 개정안은 전북에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당선인은 서남권 의대정원 묶이었던 서남대가 폐교하면서 공공의료 전문대학원을 서남권일대에 설립하는 '공공국립의원법'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당선인은 "공공국립의원법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가 의대 증원여부를 놓고 공공의대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와 정부, 대통령실 이견이 보여 엇박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준 만큼 우리 야당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에 역으로 패키지를 제안하고 여야와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제안해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입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위해 국회가 소집된 이후 마지막 힘을 발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선관위 "총선 당선·낙선 담레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담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토·일요일 신문 쉽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